

2021년 파종회장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파종회장협의회(회장 권기호)는 2021년 11월 30일 오전 11시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안동선비문화박물관 2층 대덕홀에서 파종회장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기호 회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권기덕, 권인탁 협의회 고문 3명, 권주연 부호장공파, 권오돈 추밀공파, 권세복 복야공파, 권오신 좌윤공파, 권기수 별장공파, 권오준 부정공파, 권중근 시중공파, 권영택 중윤공파, 권기홍 군기감공파, 권영택 정조공파, 권병도 호장공파, 권무탁 검교공파 등 파종회장 12명,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기원 협의회 총무, 권영건 안동권씨중보 보도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 권영길 전 경북도 복지간강국장과 권기창 국립 안동대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권기원(별장공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 상음례, 신입 파종회장 3명 소개, 회장인사, 축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임원개선, 기타 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기호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비가 내리고 날씨 마저 추운데도 각 파종회장님 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고 “해마다 각 파 부회장과 총무를 함께 초청했으나 2년 째 코로나 영향으로 이번에 회장만 초청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안동권씨 가일마을과 안동김씨 소산마을을 유적탐방하기로 했으나 비가 많이 내리는 관계로 취소하고 선비문화박물관과 안동한지공장을 견학하기로 했다”며 양해 말을 했다. 이어 권계동 협의회 고문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11년 8월 안동장자방에서 출범한 협의회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기총회를 갖는 등 지금까지 지나온 발자취를 회고한 후 지난해는 코로나로 소규모 행사를 가졌다”며 “앞으로 권문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인사말과 축사가 끝나자 권기원 총무의 경과보고와 결산보고를, 권영택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임원개선에선 협의회 회장 선출을 두고 많은 논란과 토의 끝에 제5대 협의회 회장에 권주연 부호장공파종회장을 선임하고 부회장에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감사에 권영택 정조공파 회장을 유임 시켰다. 권주연 신임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협의회와 권문의 발전을 위하여 대종회에 많이 걱정하면서 회장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으며 권오돈 부회장은 “신임 회장을 보필하고 안동권씨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의가 끝나자 회의장내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안동선비문화박물관을 견학했다.

이 박물관(관장 심재덕)은 한국정신문화의 표상(表象)인 ‘선비’와 ‘선비문화’에 대하여 재고(再考)해 볼 수 있도록 고서, 목판, 서화, 유물 등 다양한 자료를 수 천점 전시해 두고 있다. 전시물 가운데 선조 26년(1592)부터 이듬해까지 1년 동안 안동을 비롯해 주변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한 근시재(近始齋) 김해(金海, 1555-1593)의 의병부대 활동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일기 있다. 또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483호로 임란일기인 ‘향병일기’, 그리고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언행록, 이퇴계선생의 초상 및 필적, 초서시고 목판 10판 등 집기와 자료, 간찰, 교지가 있어서 옛 선비들의 다양한 학문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협의회 회원들은 안동시 풍산읍 나바우길 13 안동한지공장(회장 이영길)으로 이동, 이곳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회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는 가운데 권기호 회장, 권주연 신임회장, 권영택 감사 등 3명이 돌아가면서 건배제의를 하면서 단합을 과시했다.

식사를 마친 일행들은 안동한지공장을 방문, 이영길 회장으로부터 공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영길 사장의 안내를 받아 한지가 생긴다는 전 과정을 들려보았다. 공장안에는 나나무원료공장, 한지 상설전시관, 한지제조작업장, 한지제조체험장, 한

지전시판매장, 한지공예관 등 크고 작은 건물이 20여 채가 있다. 종이 만드는 과정은 나나무 채취, 껍질 벗기기, 삶기, 표백, 짓이기, 물 빼기, 건조, 한지에 색 입히기, 열판에 종이 건조시키기 등 까다로운 공정을 30여 단계를 거쳐 나온 제품이 화선지, 장호지, 벽지, 장판지 등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전통한지이다. 전통한지는 물론 한복, 도포, 두루마, 여자 옷, 수의, 속옷, 넥타이, 양말, 손수건, 핸드백, 닥종이 인형, 서예품 등 100여 가지를 만들 어 판매하고 있다. 안동한지는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었던 G-20 정상회담 행사장에 안동한지로 도배를 했으며 지난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에 왔을 때 선물용으로 안동한지를 사기기도 했다. 행자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정부의 훈, 포장 포상증으로 안동한지를 사용하고 있다. 안동한지는 한지의 가치와 기술을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안동한지축제를 개최하는데 올해로 제13회 째 맞이했다.

일부 회원들은 비 오는 가운데도 안동선비문화박물관과 안동한지공장을 둘러보고 나서 “안동의 오래된 유물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데 감명 받았다”며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백진주 쌀 20kg들이 1부대씩을 사전 택배로 보냈으며 권순협 전 별장공파회장은 흥삼농축액 1통씩을, 안동한지공장 이영길 회장은 안동한지에 조선조 명필인 한석봉(韓石峰)이 쓴 천자문을 인쇄한 두루마리 1점씩을 선물로 각각 전달했다.

〈보도부장 권영간〉



도리 솔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오후 늦게 대구로 떠났다.

우리 후손들은 모두 이분들의 숭고한 숭조정신을 이어 받아 능동을 찾았을 때는 산소의 잡초 한

포기라도 뜯으면 선조님의 음덕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권문의 후예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아가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대종회 안동사무소 권오익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18)



우리 대한민국은 외세인 중국과 일본과의 침략과 전쟁에 맞서, 내부의 방어전쟁과 강화협상이 반복되며 대등하게 맞서거나 등거리외교 혹은 일시적이지만 망국으로 피어린 부흥·독립운동(전쟁)과 종속적으로 중국의 당·원·명·청나라 제국에 대한 사대모화(事大慕華)·송명배청(崇明排清) 사상과 으로 역사적 아픈 경험과 훌륭한 자산(資產)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단재 신채호(申采浩, 1880~1936)의 어록,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가 최근의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격동의 시기에 우리는 자존심과 긍지를 다시금 일깨운다고 본다.

‘이이제이(夷以制夷)’는 범엽(范疇, 398~446, 남조의 송나라 자는 율종왕)의 ‘후한서후漢書’(권16)의 ‘등구열전鄧寇列傳’(열전제6) 중 〈등훈전鄧訓傳〉에 등장한 고사성어로, 원문에는 ‘이이벌이(夷以伐夷)’인데, 그 의미는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뜻이다. 그 원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 등훈은 병사를 보내 호족(胡族)을 보호하여, 강족(羌族)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주위의 책사(策士)들은 주위의 강족과 호족이 서로 공격하는 것은 지방관리(縣官)나가 한(漢)나라 조정에 유리한 것이라고 오랑캐로 오랑캐를 치는 것이니, 호족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 그들을 지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여겼다.”

중국 고대국가는 대대로 중원 땅에 자리 잡으며 그 왕조를 이어 나갔다. 드넓은 영토를 가진 중국의 역대 통일왕조인 진한(秦漢), 수당(隋唐), 송원(宋元), 명청(明清) 제국들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다. 오랜 상고시대부터 변방의 오랑캐를 사방(四方)으로 동이(東夷)·서용(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으로 불렸고 통칭해서 오랑캐를 “이(夷)”라고 했다.

북방의 수렵·유목·농경과 이를 혼합한 민족(五胡: 흉노匈奴·선비鮮卑·저氐·羯胡·강羌)과 돌궐·거란·몽골·여진 등도 대제국을 이루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시시때로 중원 국가의 국경을 침공·야탈하고 역사적으로 중원 국가의 본토를 침략하여 국가를 폐망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중원 국가들에게 있어 북방 유목 민족은 국가의 존속을 가로막는 존재였다. 후한의 경우, 당시 그들이 오랑캐라고 여긴 서북 방향의 강족이 한나라의 위협을 가하자 한나라는 또 다른 오랑캐인 소월씨족과 연합하여 강족에게 위압감을 주었으며 연합을 지켜본 강족은 물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당시 중원 국가였던 한나라는 ‘이이제이’ 전술을 통해 자국의 피해를 줄이고 오랑캐를 이용해서 다른 오랑캐를 물리친 바 있었다.

서양 또한 로마제국 시대에 거의 같은 전략으로

고려는 475년간(918~1392) 수많은 외세(거란, 몽골, 예구, 흥건적 등)의 침략을 받은 국가였지만 그들에 의해 멸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외세의 침략을 단지 국방력으로만 막은 것이 아닌 뛰어난 외교술로 외세의 침입을 막아냈다. ‘해동성국(海東盛國)’이었던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족을 통합한 요(遼)나라의 대군이 수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당시 고려의 국방력으로는 요나라의 침입을 막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 고려의 문관출신인 서희(徐熙, 942~998)는 뛰어난 외교술로 거란의 장수 소손녕과의 담판을(993. 윤10) 통해 거란의 대군을 퇴각회군 시키며 요나라의 1차 침입을 막아냈다.

(다음호에 계속)

〈2021年 12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종보대금을 납부해주신 족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납부해 주신 종보대금은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름순) 단위: 원

권구현(합천) 30,000	권영길(상주) 30,000	권오준(포항) 30,000	권종훈(서울은평) 30,000	권혁기(경주) 30,000	권이수(전주) 20,000
권규봉(순천) 30,000	권영대(고양) 30,000	권오진(안동 무릉리) 30,000	권주철(서울중랑) 30,000	권혁길(강릉) 30,000	권자하(전주) 20,000
권기색(경기고양) 30,000	권영대(의산) 30,000	권오청(서울은평) 30,000	권준욱(청주) 30,000	권혁문(대구) 30,000	권춘근(전주) 20,000
권기준(서울강서) 30,000	권영록(합천) 30,000	권오현(대구 달서구) 30,000	권중도(안동) 30,000	권혁성(청양) 30,000	권혁신(전주) 20,000
권기철(예천) 30,000	권영석(서울은평) 30,000	권오현(대구 동구) 30,000	권중우(서울성동) 30,000	권현욱(봉화) 30,000	권혁주(전주) 20,000
권기현(대구 구암동) 30,000	권영식(인천) 30,000	권옥선(대구) 30,000	권태웅(서울영등포) 30,000	권경수(전주) 20,000	권혁채(경기평택) 20,000
권도현(서울강북) 30,000	권영학(구미) 50,000	권용덕(서산) 30,000	권태익(서울용산) 30,000	권기성(전주) 20,000	권현수(전주) 20,000
권병구(양주) 30,000	권영희(인천) 30,000	권용수(영주) 30,000	권태필(서울동작) 30,000	권기택(완주) 20,000	권희선(전주) 20,000
권병덕(인천) 30,000	권오극(안동) 30,000	권은수(포항) 30,000	권태형(원주) 30,000	권기혁(전주) 20,000	권희승(전주) 20,000
권병도(대구) 30,000	권오복(대구) 30,000	권인규(정읍) 30,000	권태훈(대구) 30,000	권명수(완주) 2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병윤(영덕) 30,000	권오석(경기파주) 30,000	권재용(통영) 30,000	권태훈(서울영등포) 30,000	권문오(전주) 20,000	전주완주종친회 40,000
권부교(영천) 30,000	권오영(안동) 30,000	권재중(경기평택) 30,000	권태희(상주) 30,000	권영기(전주) 20,000	참의공종중 500,000
권상태(남양주) 30,000	권오영(예천) 30,000	권정홍(산청) 30,000	권택전(경주) 30,000	권영춘(전주) 20,000	충주종친회 960,000
권수기(대구) 30,000	권오웅(서울용산) 30,000	권종웅(대구) 30,000	권현(영주) 30,000	권오채(전주) 20,000	● 납부기간: 11.30 ~ 12.28.
권연형(경주) 30,000	권오점(안동) 30,000	권종일(구미) 30,000	권혁구(대전) 30,000	권오훈(완주) 20,000	● 총 납부자 84명 / 지사.지국 3곳
					● 총 3,850,000원